

뉴라이프 시리즈 소그룹 인도 교안

(2) 때가 찼고

- 사도신경: 다같이
- 기도: 말은이

“뉴라이프 (2) 때가 찼고”
-마가복음 1장 9~15절-

❖ 마음문 열기 (Welcome)

최근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 찬양하고 경배하기 (Worship)

주를 양모하는 자(찬354)

❖ 말씀나눔 (Word)

1. 이번 주일설교와 마가복음 1장 9-15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지난주 우리는 복음을 “거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다는 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봅시다.
3.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복음과 광야 그리고 세례는 그런 점에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세례가 그렇습니다. 각자 경험한 세례를 떠올려 봅시다. 세례를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나눠봅시다.
4. 복음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광야의 자리처럼 나를 주저앉게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 좋은소식 알리기 (Witness)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합시다.

❖ 함께기도하기 (Work of Prayer)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아가 한주간 이 내용들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